

동시대에 유효한 ‘포용디자인’ 미래가치 담는다

CULTURE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요작품 발표

1~4전시관 영·미 등 대표작 윤곽 ‘포용디자인’ 철학 전파
세계·삶·모빌리티·미래…11개국 223명 80개 기관 참여
AI 기술 적용·‘광주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 관심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전시 콘셉트로 내세워 8월 30일 개막하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요 작품의 윤곽이 드러났다.
(재)광주비엔날레는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이끌 최수신 디자인 총감독(현 미국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SCAD: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학부장)과 최태욱 코디네이터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간담회를 열고 올해 11개국 223명 디자이너(팀), 80개 기관·단체(18일 기준) 규모로 한 주요 작품 일부를 공개했다.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포용디자인을 ‘세계’와 ‘삶’, ‘모빌리티’, ‘미래’ 등 네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시를 구현할 복안이다. 디자인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적용해 온 세계 각국의 포용디자인 발전과 영향 및 세계 디자인 대학 학생들의 프로젝트(1전시관)와 일상의 차이를 변화시키고 연결하는 포용디자인을 보여주는 사례(2전시관), 이동약자를 넘어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는 모빌리티의 확장을 이끄는 디자인(3전시관), 인공지능 기

술과 디자인이 만드는 미래에 다양한 포용적 가능성의 시각화(4전시관)를 다채롭게 풀어낸다.
네 개의 전시관은 포용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각각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로 세분화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나 관점을 마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포용디자인과 세계’를 내세운 1전시관에서는 영국 왕립예술대학원 헬렌 함린 센터의 작품 ‘롤레이터’(Rollater)가 선보인다. 전동 스쿠터, 밸런스 보드의 요소를 결합해 기존 보행 보조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이 가능하게 만든 이 작품은 형태의 안정감은 물론 디자인 미감이 더해져서 특정한 사용자에 국한되지 않는 등 폭넓은 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포용디자인과 삶’을 표방한 2전시관에서는 스마트 디자인(Smart Design, 미국)의 ‘옥소 굿그립 감자칼’(Oxo GoodGrips Potato Peeler)을 만날 수 있다. ‘옥소 굿그립 감자칼’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고안한 제품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도구로 성공한



한국과학기술원의 ‘볼륨스퀘어-특수 재난 대응 모바일 팝업 병원’(3전시관)



영국 왕립예술대학원 헬렌 함린 센터 ‘롤레이터’(1전시관)

사례이다. 감자칼 기능에 안정감 있는 그림감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받아들여진 제품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포용디자인과 모빌리티’를 구현할 3전시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볼륨스퀘어



‘옥소 굿그립 감자칼’(2전시관)

(Volume Square)가 출품된다. ‘볼륨스퀘어’는 특수 재난 대응 모바일 팝업(Pop-up) 병원으로 전쟁, 홍수, 화산 폭발 등 갑작스러운 특수 재난 상황에서 절실한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한 이동형 팝업 병원이다. 노약자, 장애인, 감염자, 고립자 등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포용디자인을 담는 장소가 될 광주와 밀접한 프로젝트인 ‘광주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Gwangju Metro Inclusive Design Project)

가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20년이 된 광주의 지하철을 연구 사례로 삼고 광주의 첫 관문이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광주송정역에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대학생 대상 디자이너 육성 전문교육프로그램인 코리아디자인 멤버십 플러스(KDM+, KOREA DESIGN MEMBERSHIP+) 회원들과 포용디자인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팀은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현장 리서치를 마치고 콘셉트 도출과 디자인 시안을 완성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결과물은 3전시관에 구현된다.

마지막으로 ‘포용디자인과 미래’라는 가치로 꾸며질 4전시관에서는 다니 클로드(Dani Clode)의 ‘세 번째 엄지손가락’(Third Thumb)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세 번째 엄지손가락’은 손에 추가로 장착하는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으로 사용자의 새끼손가락 아래에 부착하고 발가락의 움직임으로 작동하는 센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 모든 사람에게 인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장치로 설계됐으며 이후 캠퍼지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이어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Interface)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학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은 8월 30일 개막날에 맞춰 열리는 가운데 포용디자인 전문가, 디자이너, 정책 입안자, 연구자 등 9명이 참여, 주제별 토론을 통해 동시대에 유효한 포용디자인의 전략과 역할 등을 논의한다.

한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6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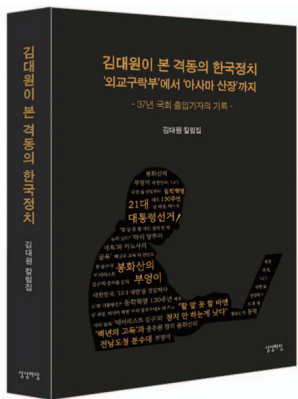
37년째 정치부 기자가 정리한 ‘격동의 한국정치’

■ 김대원 드림투데이 선임기자 칼럼집 출간

“예리한 시각·명쾌한 논리”로 호남 정서·흐름 전달
발로 뛰며 취재한 내용…기명 칼럼 중 90여편 엄선

1988년 이후 37년째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는 ‘드림투데이’ 김대원 선임기자의 칼럼집 ‘김대원이 본 격동의 한국정치’(상상마당 刊)가 출간됐다.
김대원 선임기자는 오랜 기자 생활 동안 주로 국회와 정당, 청와대를 오가며 국내 정치 현상을 취재한 몇 안 되는 기자로, 이번 칼럼집에는 그동안 신문에 발표해 온 기명 칼럼 중에서 90여편을 추려 엮었다.
‘외교구락부에서 아시아 산장까지 -37년 국회 출입기자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칼럼집은 오랜 세월 한국 정치판을 발로 뛰어나니며

취재한 내용을 깊이 있는 평론으로 엮어낸 일종의 역사책이다.
지난 2002년부터 광주매일신문과 광남일보, 무등일보, 드림투데이 등에서 ‘여의도 칼럼’과 ‘여의도 포커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쓴 기명칼럼을 망라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현상을 드러내고 이면을 사정없이 파헤친 그의 칼럼은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끌어왔다. 독자들로부터 “예리한 시각과 명쾌한 논리는 그만의 독창적 ‘아우라’를



형성하며 다른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호남의 정서와 흐름을 이해하는 일종의 ‘창’(窓)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 선임기자는 치밀하고, 끈질기며, 때로는 용기 있는 기자로 통한다. 문제의식이 분명한 그는 특히 기자정신에 투철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호남 정치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끈질기게 추적해 온 그는 이 때문에 광주·전남 정치사의 백과사전이라고도 불린다. 이 나라 정치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정치인 중 그의 취재 그물망을 피해 간 인물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는 끈질기고 부지런하게 취재현장을 누비며 묻고 또 묻는 기자로 유명하다.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공부를 게을리하

지 않는 그는 동학농민운동을 탐구해 그 분야에 서 사려 깊은 글을 쓰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1960년대 북한의 베트남 파병을 끄집어내 연계시킨 칼럼은 다년간의 경험과 학습이 결미된 김 기자의 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훌륭한 에디토리얼(기사와 함께 게시되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또 12·3 비상계엄과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이어진 칼럼들은 시종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함과 밀도있는 분석으로 격변기 소사(小史)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독자들은 그의 칼럼을 통해 지열한 기자정신을 지닌 한 언론인의 용기와 휴머니티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칼럼집 완화에 실린 정계·언론계 인사들의 추천사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 시절)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DH그룹(㈜드림미디어)이 정권 회장, 김원욱 언론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병욱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의 다양한 추천 글이 실려있다.
이 칼럼집은 20일 이후 시중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체 462쪽 분량, 가격은 2만원.
고선주 기자 rainidea@

‘지속가능 2025 문화도시 조성’ 포럼 23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 이하 지원포럼)은 제26차 문화도시 이슈포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갖는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문화정책과 지속 가능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도시 이슈포럼은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광주의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담론의 장으로, 지역 문화 전문가와 시민사회,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 시작된 국가적 프로젝트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 연장됐으며, 현재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지원포럼 류재한 회장이 기조발표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과 관련 공약에 대비한 정책 방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전략을 집중 조망한다. 김대경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21년 건강기능식품 생산 품질인증(신원)을 획득한 그린프리미엄은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은 300mg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